

근대 「일본어」에 있어서 경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한 유 선**
형 진 의***

目 次

1. 머리말
 2. 경어연구의 흐름
 3. 국정교과서 『국어독본』에 나타나는 경어 어휘의 변천
 4. 맺음말
-

1. 머리말

「경어」란 화자와 청자, 그리고 표현 대상과의 사이의 지위, 세력, 친소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¹⁾으로 그 관계 설정이나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경(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에 있어서 경어에 대한 관념, 「경어=일본 정신」 또는 「경어=일본의 미」라는 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본 논문의 목적은 「경어=일본 정신」, 「경어=일본의 미」라는 이러한 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접근을 두 방향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어 연구의 흐름을 통해 각 시대별로 경어가 어떤 사회적 문맥에서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어 제정 과정에서 경어 어휘는 어떤 식으로 정비되어 가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은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대 「일본어의 경어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오늘날 자명한 사실로서 인식되고 있는 「일본어」에 대해 최근의 사회언어학적 문제제기를 토대로 「일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개별 언어로서의 「Japanese」를 일본에서 「국어」로 표현할지 「일본어」로 표현할지 하는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1930년대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이 논문은 우송대학교 2005년도 교내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우송대학교 교수

*** 우송대학교 초빙교원

1) 『廣辭苑』, 岩波書店 1994年 p.785

언어학적 입장에서 「일본어」를 정의하면 「일본국 내에서 가장 보통으로 사용되는 언어」²⁾로서 화자수가 가장 많은 언어, 즉 일본의 「국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어」든 「일본어」든, 그것은 근대국민국가로써 「일본」이라는 국가의 형성기에 구축되는 개념으로, 천 몇 백 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역사와 줄곧 함께 해 온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 1990년대 이후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지적되고 있다³⁾.

근대국민국가에서 「국어」는 행정, 사법, 교육 등 실무적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담당하는 역할과,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써 탄생했다. 때문에 「국어」는 하나의 대전제로서 단일하고 균질적인 언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어」의 성립과 동시에 표준어 제정이나 문법의 정비, 철자법개정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에서 이러한 개념의 「국어」는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에 의해 소개되고 성립된다. 우에다는 1894년 실시한 강연 「국어와 국가(國語と國家と)」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국가」와 「국민」과 「국어」를 하나로 묶고, 나아가 「국어」는 「일본인」의 모어이고 정신적 혈액이라고 하여⁴⁾ 언어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한다. 그리고 우에다는 문부성 내에 「國語調査委員會」를 설치하고 표준어 제정, 구어문법의 정비, 철자법의 개정 등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국어」는 종종 「국어=일본어」라는 등식으로 다루어졌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동일한 실체이지만 각각이 태어난 배경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국어」가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탄생한 것에 대해, 「일본어」는 타자(他者)를 전제로 한 「일본」이라는 국가개념의 형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00년대 초까지 「국어」와 「일본어」의 개념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며 용례도 적다⁵⁾. 「일본어」라는 용례가 빈번히 등장하면서 「국어」와의 구분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것은 「일본」이 침략에 의해 이민족을 지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참고로 대만이나 한국(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본어」를 「국어」로 강요당했지만, 1932년 성립된 만주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점령지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강요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국」의 경계를 넘는 「동아 공통어」로서의 언어인 「일본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國語學大事典』國語學會編 東京堂出版 1984年 p.679

3) イ・ヨンスク[1996] 『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安田敏朗[1997] 『帝國日本の言語編制』世織書房

4) 上田万年[1894] 『國語と國家と』『明治文學全集44』(1968年) 筑摩書房 p.110

5) 「國語」, 「日本語」의 용례가 사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헤본의 『和英語林集成』의 3판(1886년)으로 「日本語」는 소개되지 않고 「國語」만 실려 있는데 그 의미는 language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오츠키 후미히코(大槻文彦)의 『言海』(1889년)에는 「國語」는 등장하지 않고 「日本語」만이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日本の言葉」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 그 밖에도 1900년 이전의 문헌에서 간혹 「國語」, 「日本語」가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漢語에 대응하는 「大和言葉」로서 표기는 「國語」라고 쓰고 음은 「くにことば」를 달고 있다.

참고로 우에다도 「국어와 국가의(國語と國家と)」에서 「國語」, 「日本語」, 「日本國語」를 혼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실체란 어떤 것인가. 가메이 다카시(龜井孝)는 「일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しかしながら「それではそもそも日本語とはなにか」ともしここにひらきなおってそう問うならば、これはもはやけっして自明の概念ではない。なんらの抽象の操作をまつことなしにすでに言語そのものが一個の統一として實在の對象としてわれわれのまえにまずあるわけではないからである。」(龜井 1971,p.229)

「すなわち万葉集のことばと二十世紀の日本の言語とがその實質においていかにことなつたものであつても、なおかつこれらをわれわれがともに「ひとつの日本語のすがた」としてうけとるようになりびかれてきているとすれば、このばあいそれはすくなくとも直接には純粹な意味での言語學の影響によるものではなく、ある固定した觀念の獨斷である。そういう獨斷は歴史を超越する形而上學的な絶對の存在を暗黙のうちに一いわば神話として一假定するそういう思想からのひとつの派生である。」(龜井 1971,p.232)

즉 언어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무엇이라고 한 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요슈』(万葉集)의 일본어와 현대의 일본어를 동일시하는 것은 언어학적 접근보다는 역사를 초월한 고정된 관념의 독단, 즉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일본어」로 사용하는 말이 마치 자연스럽게 항구히 존재해 온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고에 대한 비판인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어의 극치는 경어법의 아름다움에 있다(日本語の極致は、敬語法の美しきにある)。」(金田一京助), 「일본어에서의 경어는 중략 일본정신의 하나의 큰 특색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日本語における敬語は一中略一日本精神の一つの大きな特色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佐久間鼎)와 같이 「일본어의 극치」 또는 「일본 정신」으로 일컬어져 온 경어 또한 「일본어=국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어느 특정 시점에 구축되어 「일본인」의 정신으로 설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어연구의 흐름

경어가 연구대상이 되면서, 구어로써의 경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오이시 하츠타로(大石初太郎)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學問的組織化としての敬語の研究は一中略一不思議というべきか、研究らしい敬語の研究は、明治も末年になってようやく見られるのであって、それ以前には、ほとんど言うに足るものがな

い。江戸時代の學者の間に、二、三個別的な考察は見られても、敬語の本質は何か、敬語の体系はどうかというような研究をみることはできない。文法に關し、文字に關し、語彙に關し、江戸時代あるいはそれ以前から、かなり見るべき言葉の研究の伝統があるのに對し、敬語に對する研究が起らなかったのは、奇妙なことだった。(大石 1977,p.208)

오이시(大石初太郎)는 메이지 말년까지 경어 연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기묘한 일」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나,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근대국민국가에서 「국어」의 탄생과 더불어 경어도 또한 새로 태어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이시(大石初太郎)가 연구다운 연구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메이지 말년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국가주의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우에다(上田万年)에 의한 근대국민국가의 「국어」가 구축되고, 그와 함께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에 의한 구어문법연구가 활발해 진다. 또한 「國語調査委員會」에 의한 표준어 제정 등 이른바 「국어 만들기」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이다. 즉 경어는, 근대 사회의 모든 제도를 담당하면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써 구축되는 「국어」의 하나의 축을 이루며 「국어」에 의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오이시(大石初太郎 1977,p.210)가 경어연구의 시초로 지적하고 있는 마츠시타 다이사부로(松下大三郎)의 『日本俗語文典』(1901), 요시오카 교호(吉岡郷甫)의 『日本口語法』(1906)은 개인에 의한 구어 문법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⁶⁾. 이들 구어문법서가 일체히 경어를 다루고 있지만 당시는 아직 구어의 규범이 정해지지 않고, 「경어」라는 술어조차 정착되지 않아⁷⁾ 마츠시타(松下大三郎 1901,p.67~163)의 경우 「体詞の待遇」、「用詞の待

6) 이 시기 아래와 같이 개인에 의한 구어 문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1916년 국어조사위원회의 『口語法同別記』에 이르러 구어 문법의 규범이 정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前波仲尾	日本語典	一九〇一年三月
松下大三郎	日本俗語文典	一九〇一年四月
石川倉次	はなしことばのきそく	一九〇一年八月
石川倉次	同付録	一九〇一年八月
同文官	國語科教科用口語文典	一九〇一年九月
金井保三	日本俗語文典	一九〇一年十一月
小林稻葉	新編日本俗語文典	一九〇二年四月
入江祝衛	日本俗語文法論	一九〇二年十二月
鈴木暢幸	日本口語典	一九〇三年十二月
吉岡郷甫	日本口語法	一九〇六年一月

7) 「경어」라는 용어의 초출에 대해 츠지무라(辻村敏樹)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敬語」という語は、字面の上では、井上淑蔭の『活語新論』(1863)に早く見えているが、ウヤマイコトバと讀ませるのかも知れない。明らかにケイゴと思われるもので早いものは、田中義謙の『小學日本文典』(1874)や西周の「洋字ヲ以テ國語ヲ書スルノ論」(『明六雜誌』1号、1874年)などである。佐藤誠實の『語學指南』(1875)には、「佐行四段ノ活ニハ、他ノ活ヨリ轉ジテ敬語トナレルコトアリテ」(卷二一六ウ)などわざわざルビがふつてある。江戸時代は「敬ひ詞」(「敬称」)、「崇め詞」(「尊めことば」)、「尊み辭」「崇め言」「あがまへ言」などいろいろの言い方・表記がなされている。(辻村敏樹 1977,p.89)

遇」로 분류하고 그것을 세분하여 「体詞の待遇」를 「自家待遇、所有待遇、關係待遇、對者待遇」로, 「用詞の待遇」는 「主体待遇、關係待遇、對者待遇」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각을 다시 「尊遇、卑遇、不定遇」로 세분한다. 예를 들면 「此ノ方」는 「体詞」의 「自家尊遇」에 속하고 「此ノ奴」는 「体詞」의 「自家卑遇」, 「神、人、大臣、知事」 등은 「존비를 정하지 않고 나타내는 직임(尊卑を定めずしてあらはす職任)」이라고 하여 「体詞」의 「自家不定遇」로 분류하고 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先生はオ歸リナスツタ」는 「用詞」의 「主体尊遇」, 「アイツハ行キアガッタ」는 「用詞」의 「主体卑遇」로써 예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요시오카(吉岡郷甫 1910,p.8,43,82)의 경우는 「恭敬名詞」, 「敬讓動詞」, 「敬讓の助動詞」라고 하여 경어 어휘를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오늘날의 규범에서 보면 상당히 일탈된 부분이 있으나 이들 연구에 의해 경어가 일본 구어의 한 영역으로서 확고히 인식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후 아마다 요시오(山田孝雄)의 『敬語法の研究』(1924)와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의 『國語學原論』(1941) 등에 의해 경어는 구어문법의 일부로서가 아니고 경어법 그 자체가 학문의 대상이 된다.

아마다(山田孝雄) 경어연구의 특징은, 『敬語法の研究(1924,p.11)』에서 「여기서 경어라고 하는 것은 문법상에서의 경어의 법칙이라는 의미(ここに敬語といへるものは文法上における敬語の法則といふ義)」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경어를 어휘의 레벨에서가 아니고 어법의 레벨에서 다루고 있는 점, 또 경어는 품사에서는 주로 명사 및 용언에 나타나지만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칭격(稱格)에 있다고 하고 경어를 크게 경칭(敬稱)과 겸칭(謙稱)으로 구별하는 점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謙稱は他に對して謙遜する意をあらはす語にして主として第一人称に立てる者が自己をさして又は自己に付屬するものをさしていふに用ゐるなり。一中略一敬稱とは對者又は第三者に關する者をさして尊敬の意をあらはすものにして第二人称又は第三人稱をいふに用ゐるものなり。

名詞の敬稱にありては更に之を對稱の敬稱と一般の敬稱との二に別つ。

對稱の敬稱とは第二人称に立てる者をさし、又その第二人称者に付屬連關する者をさす時に尊敬する意をあらはす語なり。一中略一一般の敬稱とは主として第三人稱に用ゐらるるものにして場合によっては對者の敬稱に流用せらるることあるものなり。(山田 1924,p.15~16)

도키에다(時枝誠記 1941,p.434)의 경어론은 「언어과정설(言語過程說)」을 바탕으로 하는 「詞」와 「辭」를 축으로 「丁寧語、尊敬語、謙讓語」로 구분하고 있다. 즉 언어 주체의 직접적 표현인 판단이 장면, 즉 청자에 의해 제약 받는 것을 「辭」라고 하는데, 「辭」를 축으로 하는 경어법을 「언어의 주체적 표현에 나타난 경어법(言語の主體的表現に現れた敬語法、敬辭)」이라고 하고, 한편 장면에 의한 제약 즉 언어의 소재의 표현을 「詞」

라고 규정하는데 「詞」를 축으로 하는 경어법을 「언어의 소재 표현에 나타난 경어법 (言語の素材の表現に現れた敬語法、敬詞)」으로 구분한다. 「敬辭」에는 「～です」 「～ございます」 「～ます」 「～まし」 등을 들고 있고, 「敬詞」는 「화자와 소재와의 관계 규정 話手と素材との關係の規定」과 「소재와 소재와의 관계 규정(素材と素材との關係の規定)」으로 양분하고 전자에 「お-になる」 「～給う」 등을, 후자에 「あげる」 「くださる」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마츠시타(松下大三郎)에서 도키에다(時枝誠訥)에 이르는 경어연구는 이상과 같은 각각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의 경어에 대한 담론은 「日本語に於ける体系の壯大にして整然たる敬語組織はいかに日本人が他人に對して思慮深きか、如何に日本人の思想の緻密にして統一なるかを知らしむるに余りがある(松下 1923,p.422)」, 「他を尊び自ら謙るは常に日本人の心頭を去らざる所なり、一中略一抑も敬語は礼儀の自然に言語の上にあられたるものなり。一中略一今にして敬語の眞意を明にしその用法を正すにあらずば、わか國は眞に礼なく節なき野蛮の境と化し去らむ。而してそのかくの如き非儀の行わるるは即ち敬語の正しき用法を知らざるによるなり。(山田 1924,p.2~7)」 등과 같은 발언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바람직한 「일본인」의 모습, 「일본인」의 정신으로서 상징되는 부분이 크고, 그로 인해 「올바른 사용」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5년 패전 후 이루어진 「국어민주화」⁸⁾의 흐름과 연동해서 경어도 또한 재검토되게 된다. 1952년 「國語審議會」는 『これからの敬語』라는 소책자를 발행한다. 거기에는 「これまでの敬語は、旧時代に發達したままで、必要以上に煩雜な点があつた。これからの敬語は、その行きすぎをいましめ、誤用を正し、できるだけ平明・簡素にありたいものである(文部省 1952,p.3)」라고 하고, 각론에서는 「戰前、父母・先生に對する敬語がすべて「おっしゃった」「お~になった」の式であつたのは少し行きすぎの感があつた(文部省1952,p.10)」라고 하면서 간소화된 예로 「きた」의 경우 「こられた」「みえた」 형태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57년 「國立國語研究所」가 간행한 『敬語と敬語意識 (1957,p.1)』에는 간행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경어의 간소화를 강조한다.

戰前から戰中にかけて、敬語は國語の特質であるからぜひ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た。また、戰後は、敬語は封建時代の遺習であるから、民主主義の世の中では當然清算すべきであると考えられた。しかし民主主義の基本は個人が互いに他を尊敬することにかかつており、その敬意をあらわす有効な手段は敬語であるから、これからの世の中にもある程度の敬語は必要だということになる。考えるのに、それはできるだけ簡素な敬語ではなからうか。

이와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1945년 이전의 경어가 그 시대 배경과 함께 일본의 국가

8) 1946년부터 실시되는 「現代仮名遣い」, 「當用漢字」 등에 의해 「國語」가 간소, 평이하게 된 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주의를 반영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경어는 이 『これからの敬語』가 제시하는 평이·간소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경어 연구에 있어서도 츠지무라 토시키(辻村敏樹)의 『敬語の史的研究』에 대표되는 것처럼 경어의 통사적 연구, 경어의 체계, 분류법의 정밀화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특히 이 시기의 경어는 「敬の言葉」라기 보다 「礼の言葉」⁹⁾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짐으로써 일본의 국민성, 혹은 일본인의 정신으로 상징되는 담론은 희석되어 간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기쿠치 야스토(菊地康人)의 『敬語』(1997)에 대표되는 것처럼 경어는 다시 「아름다운 일본어」의 상징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한다. 기쿠치는 『敬語(1997, P.461)』에서 「대체 아름다운 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차치하고 관념적으로라도 자기 나라의 말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そもそも美しい言葉とはなにか、といったことはともかくとして、観念的にも、自分の國の言葉を美しく保つ努力をすべき)」라고 하면서 이론적 접근을 뛰어 넘어 경어를 관념적으로라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これからの敬語』 이후 경어 간소화의 상징이었던 「レル敬語」에 대해서도 「당시의 시대가 그것을 요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경어라는 것은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이상은 언제나 단순히 <평이·간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면이 아무래도 있다(當事の時代がそれを要求したのかも知れない。しかし敬語というものは、然るべく使おうとする以上は、いつも單純に<平明・簡素>なだけではすまない面がどうしてもあるのである。)(菊地 1997,P.456)」라고 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문화화에 의한 『國語に関する世論調査』(1997)에는 앞으로의 경어에 관한 항목에서 「경어는 아름다운 일본어로서 풍부한 표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경어는 간단하고 알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높다(「敬語は美しい日本語として豊かな表現が大切にされるべきだ」という考え方に近い人に割合の方が「敬語は簡単でわかりやすいものであるべきだ」という人より高い)」¹⁰⁾ 라는 식으로, 경어에 「아름다운 일본어」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敬語 恥をかかない使い方』(内山 1994), 『敬語で恥をかかない本』(現代日本語研究會 1994), 『敬語はこわくない-最新用例と基礎知識』(井上 1999)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경어 연구는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교양서에 가까운 내용이다. 즉 「일본인」으로서 「일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 규범서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일본어」를 전제로 하는 「아름다운 경어」는 일본인이라면 유창하게 또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¹¹⁾.

9) 宮地裕 1981,p.4

10) 『國語に関する世論調査』文化廳文化部國語課 1997,P.67

11)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일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일본인」의 존재이

이들 연구의 또 하나 특징은 기쿠치(菊地康人)의 『敬語』, 이노우에(井上史雄)의 『敬語はこわくない—最新用例と基礎知識』에서 볼 수 있듯이 양케이트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어로서의 경어를 상정하고 그 경어의 사용 실태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양케이트 방식이 채택되었고 그 조사로 인해 「아름다운 일본어」, 「아름다운 경어」라는 인식은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국정교과서 『국어독본』에 나타나는 경어 어휘의 변천

표준어의 제정과 보급 과정에서 경어는 어떻게 표준화되어 가는지, 국정 교과서에 나타나는 어휘의 변화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교과서의 역사는 메이지 초기 자유제, 1880년 개신제(신고제), 1883년 인가제, 1886년 검정제를 거쳐 1904년 국정교과서에 이르고 있다. 이 국정교과서는 의무교육제도와 맞물려 교육 내용을 표준화, 균질화 함으로써 국가 관리에 의한 국민 교육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표준어 제정과 보급에 있어 『국어독본』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²⁾.

국정 교과서 『국어독본』은 1904년, 1910년, 1918년, 1933년, 1941년, 1946년 제6기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제1기까지의 경어 어휘의 변천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자명한 사실로써 받아들이고 있는 경어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¹³⁾.

『국어독본』 제1기에서 제4기까지의 경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다. 일본어가 모어가 아니지만 일본어로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외국 출신 학생, 일본 안에서 일본어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 반대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귀국자녀들 등등,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언어 즉 자명한 사실로서 「아름다운 경어」를 상정하고 그것을 절대적 사회 규범으로 강조 할 때, 그 규범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배타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 예를 들면 도조 미사오(東條操)의 『東京方言集』(1935)의 「今日の標準語と云われるものは、抽象的存在で、國定讀本の言葉以外には、その實体を捉えがたいものである」라는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표준어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3) 제6기에 이르는 개정 중에서 제1기와 제2기 개정은 표준어가 제정되는 시기로 어휘의 변화가 심하고 제3기와 제4기 개정은 1925년 NHK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면서 표준어가 소리를 통해 전국에 확대 정착되는 시기로서 다소의 어휘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제5기와 제6기 개정은 전쟁이 확대되는 시기로써 어휘보다는 내용 즉 국가주의의 고취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한 이유로 어휘 조사는 제4기 개정까지로 한정했다.

14) 邢鎮義 「近代日本における「國語」構築と「口語」概念の發生」 p.74 一橋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04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尊敬語)				
あそばす	なし	2	なし	なし
いらっしゃる	10	6	5	12
おっしゃる	4	5	42	72
お~になる	21	35	73	198
ござる	97	72	112	135
ごらん	6	6	26	21
ごらんください	なし	2	2	2
ごらんなさる	13	12	11	10
お~くださる	18	18	33	32
なさる	14	11	22	19
れる、られる	1	1	9	10
(謙讓語)				
いただく	4	11	20	39
いたす	3	20	22	23
うかがう(伺う)	1	3	4	1
うけたまわる	なし	1	5	8
さしあげる	2	3	6	6
ぞんずる(思う)	4	15	18	10
まいる	8	7	27	24
もうす	4	14	15	5
もうしあげる	1	6	13	22

이 중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 두개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오~になる

이 용례는 제1기 독본의 경우, 「この日はてんの一へいかの お生まれになった,めでたい日です。」(제1기 第四卷, p.10) 와 같이 천황에 관한 기술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기 독본에서는 천황 이외의 소재에도 이 용례는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イツカ センセイ ガ オハナシ ニ ナリマシタ。」(제2기 第一卷, p.51) 와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제3기 이후는 더욱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오~になる」에 대해 츠지무라 도시키(辻村敏樹 1968, p.261~264)는, 에도 말기에 싹트기 시작한 말로써 메이지 초기의 문헌에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메이지 20년이 되면서 스에히로 테쵸(末廣鐵腸)의 소설 『雪中梅』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후타바테 시메(二葉亭四迷)나 츠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작품에는 보이지 않다가 메이지 30년대가 되면서 『金色夜叉』, 『不如歸』, 『浮草』 등에서 다시 나타나고 마침내 메이지 40년대 전반에 들어가서 「오~になる」형식이 우세하게 된다.

즉 「오~になる」는 그다지 역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메이지 3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동40년대에 정착한 새로운 대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츠지무라(辻村敏樹 1968, p.251)의 말을 빌면 「今日は敬語の面からすれば、まさに「오~になる」の時代と銘打って

もよいほどである」라고 할 만큼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을 국정 교과서 편찬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메이지37년(1904년) 편찬이 시작되는 제1기 국어독본에는 천황에 대한 특별한 경어로서 쓰이던 「お~になる」가 메이지43년(1910년)에 이루어진 제2차 개정에서는 일반적인 경어로 쓰이기 시작하고 그 후로는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히 사용빈도가 많아지면서 경어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만큼 빠른 보급양상을 보인다.

○いただく

- お父さんにつれてきていただかうではございませんか。 (제1기 第五卷,p.59)
- オカアサン カラ オトシダマ ニ イタダイタ 本 ガ 一サツ アリマス。
(제2기 第7卷,p.18)

이 용례는 각기에서의 사용 방법에는 오늘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사용빈도가 현저하게 늘고 있다.

신무라 이즈루(新村出)는 『國語の規準』 (1943)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東京の言葉の方が京都の言葉の方よりも敬語が進んで居る、煩わしい例は除きましても敬語の用法は東京の方がより厳しくて、京都の方がより緩やかなんではなからうか、詰り敬語の階級性と云ふものを歴史的に考察しますと、東京の方が嚴重に行われる、上方の方が非常に慣用である、一中略一

又頂くと云ふ言葉と貰ふと云ふ言葉の使い分け、上方では目上の人にもものを受けたり、又或ることをして頂いた場合、それを直接に表現する時に、「して貰うた」「之を誰々から貰うた」「先生に教えて貰うた」と云ふやうな云ひ方を致しますが、東京の家庭などに於ては「貰った」と云ふ言葉は「頂いた」と云ふ言葉に對して相當程度の低い場合には使ひますけれども、その使い分けを相當心得て致して居ります、「先生に教えて頂いた」「お父さんに之を買って頂いた」を上方では「買うて貰うた」と云ふのでありませうが、さう云ふやうな使い分けが、私供東京育ちの言語人には耳障りになるのであります、」(新村 1943,p.77)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경어의 규범은 「도쿄어」를 중심으로 정착한 것이라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표준어는 앞에서 언급한 「國語調査委員會」에 의해, 「도쿄의 교육 받은 중류 사회의 말」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는데, 경어에 있어서도 일본 전통의 상징이자 천년의 수도(千年の都)라는 교토 말 보다 도쿄 말이 국가적 견지에서 가치가 인정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지위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신무라(新村出)는, 「もらう」는 교토에서, 「いただく」는 도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자와(湯澤幸吉郎)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평가를 달리한다.

「いただく」は動詞式活用の連用形・音便形を受けた「て」に付いて、その動作を他に請い、また感謝の心をもってその動作を受ける意の謙語をつくる。現代の談話には普通に用ゐられるが、江戸の物には用例が多くない。「もらう」は「いただく」の平常語であって、接續法も「いただく」と同様である。江戸言葉では極めて普通に用ゐられた。(湯澤 1954,p.190)

즉 에도에서도 「いただく」보다는 「もらう」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신무라의 언급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메이지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도쿄의 경어 사용이 교토보다 엄격하고, 엄격한 경어 사용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일반론에 의해 도쿄 사람들 사이에서 「いただく」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고 보여 진다. 「お~になる」와 마찬가지로 「いただく」도 줄곧 「일본어」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메이지 이후, 그것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식인 것이다.

「일본어」는 「일본 국민」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의식이 싹트고 나서, 즉 「국어」로써 구축된 이래 「일본어」에 있어서 경어는 「日本語の極致」、「日本の伝統」、「日本人の礼節」、「日本の美」로써 일컬어져 왔지만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경어는 일본의 전통이라기보다는 메이지 이후의 새로운 양식인 경우가 많고 그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은 「도쿄어」의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체는 시대 논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인위적 산물인 것이다.

4. 맺음말

오늘날 「일본어」에서 경어를 말할 때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는 수식어 「올바름(正しさ)」、「아름다움(美し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경어의 「정확도」 또는 「올바름」、「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학문으로서의 경어 연구의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제국」의 형성과 함께 국가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에 경어는 「일본」、「일본인」의 상징으로서 관념적인 담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패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사회 제반의 개혁의 흐름 안에서 경어 또한 「간소」、「평이」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갑작스럽게 국가주의적 담론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는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항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강화와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연숙은 「國語と言語的公共性(2000,p343)」에서 근대국민국가에 있어서 「국어」에 내재된 「자연」、「고향」、「모어(母語)」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근대국가의 「국어」가 구축된 후 백년이 지난 오늘날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항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로서 「국어」가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 가지 예로, 영어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해 「아름다운 일본어를 지키자(美しい日本語を守れ)」라는 구호는 꽤 설득력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본의 「국어」를 가장 「국어」답게 하는 요소, 「일본인」을 가장 「일본인」답게 하는 언어 요소로 일컬어져 온 경어에 대한 오늘날의 담론은 「국어」 내셔널리즘의 흐름과 일치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견 순수해 보이는 학문의 연구도 시대의 논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휘로서의 경어 또한 도표어를 표준어로 한다는 표준어 제정 논리에 의해 선택된 어휘로서 일본의 전통이나 일본인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어휘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근대 국가에 있어서 「국어」 어휘는 국민성이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고 강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언어는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 사회를 떠나서 언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경어 체계의 연구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성립되는가를 고찰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만을 검토하는 논의는, 자칫 「올바른 경어」라고 불리는 하나의 가설만을 상정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높다.

경어는 「보편적인」 언어행위의 하나여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경어」에의 집착은 「일본어의 극치(日本語の極致)」, 「일본의 전통(日本の伝統)」이라는 관념만을 고착시킬 뿐이다.

【參考文獻】

- イ・ヨンスク (1996) 『「國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2000) 「「國語」と言語的公共性」 『言語帝國主義とは何か』
藤原書店 343頁
- 井上史雄(1999) 『敬語はこわくない—最新用例と基礎知識』 講談社
- 内山辰美(1994) 『敬語 恥をかかない使い方』 日本實業出版社
- 大石初太郎 (1977) 「敬語の研究史」 『岩波講座日本語 4 敬語』 岩波書店
208,210頁
- 龜井孝 (1971) 「「こくご」とはいかなることばなりや」 『龜井孝論文集1 日本語
學のために』 吉川弘文館 229,232頁
- 菊地康人 (1997) 『敬語』 講談社學術文庫 46,461,456頁
- 金田一京助(1992) 『金田一京助全集 第三卷』 三省堂
- 現代日本語研究會 (1994) 『敬語で恥をかかない本』 ロングセラーズ

- 國語審議會 (1952) 『これからの敬語』 文部省 3,10頁
國語調査委員會 (1916) 『口語法』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1917) 『口語法別記』 國定教科書共同販賣所
國立國語研究所 (1957) 『敬語と敬語意識』 秀英出版 1頁
酒井直樹 (1996) 『死産される日本語・日本人』 新曜社 128頁
佐久間鼎(1934) 「現代の日本語 三」 『教育・國語教育』 8月号
新村出 (1943) 『國語の規準』 敎文館 77頁
辻村敏樹 (1968) 『敬語の史的硏究』 東京堂出版 251, 261 ~264頁
(1977) 「日本語の敬語の構造と特色」 『岩波講座日本語 4』 89頁
時枝誠記 (1941) 『國語學原論』 岩波書店 434頁
邢鎮義(2004) 「近代日本における「國語」構築と「口語」概念の發生」一橋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74頁
文化廳文化部國語課 (1997) 『國語に関する世論調査』 大藏省印刷局67頁
松下大三郎(1901) 『日本俗語文典』 1997年復刊 勉誠社 68,69,167,69頁
(1923) 「國語より觀たる日本の國民性」 『國學院雜誌』 29卷5号
宮地裕 (1981) 「敬語史論」 『講座日本語學 9』 明治書院 4頁
安田敏朗(1997) 『帝國日本の言語編制』 世織書房
山田孝雄 (1924) 『敬語法の研究』 賓文館 11,15,16頁
湯澤幸吉郎 (1944) 『現代語法の諸問題』 1980年復刊 勉誠社
(1954) 『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190頁
吉岡郷甫 (1910) 『改訂日本口語法』 大日本図書株式會社 8,43,82頁

要 旨

本稿は、今日「日本語」において自明の事実のように語られてきた敬語の「正しさ」、「美しさ」を批判的に考察するものである。そのため、敬語研究の流れと標準語としての敬語の語彙の変遷を中心に考察した。

學問としての敬語研究のなかれから分かるように、「帝國日本」の形成と共に、國家主義が最高潮に達していた時期に、敬語は「日本」、「日本人の精神」の象徴として語られた。しかし敗戦後、アメリカが率いる社會改革のなかれのなかで、敬語は「簡素」、「平明」の方へ方向轉換する。しかし1990年代以降、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對抗す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のなかれの中で、敬語は再び、「日本人の精神」として語られるようになった。

語彙としての敬語も、東京語を標準語にするという、標準語の制定論理によって選ばれた語彙として、日本の伝統や日本人の精神を表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もちろんそういう語彙は存在しないが）。

言語は人間の行爲を前提に成り立つ。社會を離れて言語を語るのは意味のないことである。敬語研究がどのような社會背景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かを考察せずに、正しいかどうかだけ検討するのは、「正しい敬語」と呼ばれる一つの實体を想定し、實体を想定するかぎり「正しい敬語」を産出することになる。

敬語は「普遍的」な言語行爲の一つ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正しい敬語」の産出は「日本語の極致」、「日本語の伝統」という觀念を自明な事實として固着するだろう。

キーワード：近代國民國家、日本語、國語、敬語、正しさ、美しさ、觀念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0-831) 대전시 동구 자양동 186 국제교류센터

電 話 : 042-629-6646/019-443-0561

e-mail : hanyuseon@hanmail.net

住 所 : (300-831) 대전시 동구 자양동 186 국제교류센터

電 話 : 042-629-6646/010-3146-1933

e-mail : hjini117@hanmail.net